

우리 나라 신발

송미경(경기도박물관)

문헌에 나타난 삼국시대 신발의 형태는 크게 화(靴)와 이(履)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신의 목이 있는 장화처럼 생긴 신발을 화(靴)라고 한다. 화는 말을 타거나 사냥을 할 때 발목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신발이다. 그리고, 요즈음의 고무 신같이 생긴 신발의 목이 없는 것을 이(履)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신발 중 어느 것이 먼저 발생하였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화는 주로 말을 타고, 사냥을 하는 북방민족의 신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履)는 농사를 짓는 남방계 민족이 많이 신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의 특성과 지형적인 이유로 이 두 가지 신발을 함께 신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문헌에 남아 있는 신발 명칭을 통해 고대 우리 나라에서는 가죽·비단·풀 등의 다양한 재료와 여러 가지 색깔의 신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삼한과 삼국시대의 신발 형태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각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식리(金銅飾履)·토기(土器) 등에서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유물 중에 제일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신발은 낙랑(樂浪)시대 채협총(彩篋塚)에서 출토된 것이다. 이 신발은 이(履) 형태로서, 얇은 짐승껍질을 사용하여 상부와 바닥을 꿰매어 합치고 표면에 흑칠(黑漆)을 하였다.¹⁾

고구려시대 이(履)의 형태를 잘 나타내고 있는 고분벽화는 통구(通溝) 사신총(四神塚) 동벽(東壁)의 역사상(力士像)의 신인데, 형태로 보아 요즈음 신과 아주 비슷하다. 그리고 통구 17호분의 수문장의 신은 ‘곤돌라’같은 형을 한 매우 화려한 형태의 것으로 신 앞이 둥글게 위로 올라갔다. 무용총의 무용수들은 남자들은 이를 신었고, 여자들은 이와 화의 중간형을 신고 있다. 그 외, 통구 삼실총 서벽 예갑무인(禮甲武人)의 이는 신발 바닥에 못을 박아 스파이크처럼 되어 있다. 이처럼 바닥에 못을 박은 고구려의 이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리가 있다. 화의 형태는 매산리 사신총 현실 북벽과 쌍영총 후실 북벽 벽화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 벽화에서는 인물 앞에 신이 놓여 있다. 이 벽화의 인물과 연관시켜, 고구려의 화는 귀족층의 신이 아니었나 추정되기도 한

1) 原田淑人, 《增補 漢六朝の服飾》, 東洋文庫(東京), 1967, p. 149.

김지희, 우리나라 신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 논문, 1988, p. 6. 에서 재인용

다.2) 벽화에 있는 말을 탄 사람은 화를 신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말을 탈 때는 화를 신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용총 수렵도의 기마 인물과 음식나르는 여인들과 시중드는 남자들은 요즈음 버선 비슷한 형태처럼 묘사된 흰색의 화를 신고 있다.

양직공도(梁職工圖)의 백제사신도에는 화(靴)를 신은 모습이 있으며, 공주 무령왕릉에서 여러 가지 유물과 함께 금동(金銅)으로 만든 왕과 왕비의 리(履)가 출토되었다. 왕과 왕비의 신발 각 1쌍이 출토되었는데 제작기법은 동일하지만 왕의 것은 왕비의 것보다 길이와 폭이 크다. 그 외에도 이화여대 박물관 소장인 공주부근 출토의 금동리의 제작 시기는 6세기경으로 추정되며, 아름답지만 연약하여 실용의 목적이 아닌, 무덤에 부장품으로 넣었을 것³⁾이라고 보고 있다.

가야의 것으로 알려진 흙으로 만든 신발 모양의 토기가 있다. 한 점은 보물 556호로서 4~5세기에 만들어졌는데 호암미술관 소장으로 가죽신발을 모방한 흙으로 만든 명기(明器)로 신발의 크가 두툼하고 투박하게 솟아 있으며, 둘레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끈으로 조일 수 있게 하였다. 뒤꿈치는 가죽을 덧댄 형태로 약간 솟아있어 손으로 잡고 신을 수 있도록 한 履의 형태이다.⁴⁾ 다른 한 점은 짚신형 토기(송실대 부설 한국기독교 박물관 소장)이다.

신라고분에서 출토된 금동리(金銅履)와 경주 천마총에서 발견된 백화수피(白樺樹皮) 모자에 그려진 기마인물상에서도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일한 옷차림에 같은 모양의 신발을 신고 있다. 경주 식이총(飾履塚) 출토 장식신발은 각종 문양이 장식되어 있는 가장 호화로운 신발이라 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인 이 신발은 길이 33cm로 장의용으로 생각된다.⁵⁾

통일신라시대 각 신분에 따라 의복을 규제한 《삼국사기》색복조의 기록에서 신에 대한 규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기록은 신라 흥덕왕 때 신분제도의 확립과 사치금지를 위하여 여러 종류의 복식에 대해 내린 금제령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화는 남자가 신었고, 리는 남녀공용이었다. 화와 리에도 신분에 따라 재료를 규제하였다. 신분이 높으면 비단이나 가죽신을 신었고, 신분이 낮은 평인들은 마(麻)이하의 재료로 신발을 만들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기록에 의하면 화(靴)에는 화대(靴帶:신발 목을 매는 끈)가 달려 있다. 이 화대의 재료는 신분에 따라 백옥·서대(犀玳)·뿔·철·동(銅)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통일

2) 이은창, 한국의 복식 1978, 343쪽.

3) 조선일보, 1999년 3월 1일 30면 기사 참조.

4) 문화재대관 7, 보물 5, 한국문화재보호협회, p.186, 1986

5) 진홍섭 편, 국보 -공예-, 한국브리태니커회사, p.189, 1989

신라에서는 신발의 대에까지도 신분의 질서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삼국사기》의 통일신라의 관직명에는 답전(踏典)·화전(靴典)·마리전(麻履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발을 만드는 것을 국가에서 관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 나타난 고려시대의 신발은 공식 석상에서는 혁리(革履)를 신고, 평상시에는 초리(草履)를 신었다고 한다. “혁리의 형은 앞이 얇고 뒤가 높아 형상이 기이하다. 나라 안 남녀 소장이 모두 신었다.”고 하여 중국의 신발과는 다른 독특한 신발이었으며, 신의 형태는 남녀귀천이 모두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서민들은 삼국시대와 달리 화를 절대 신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고려불화 변상도에 보이는 고려시대 신발은 평상복에는 대부분 리의 모습이 다.

조선시대는 신에 대한 기록도 비교적 풍부하고, 풍속화와 유물 등에서도 신의 형태를 살필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履에 속하는 혜(鞋)가 대표적인 신발이었으며, 靴는 주로 상류 계층에서 행사 때 사용한 신이다.

조선시대의 신발은 왕이나 왕비가 예식용으로 신었던 석(舄), 일반 복식에는 혜(鞋)를 신은 기록이 있으며, 제복과 조복에 신었던 흑혜(黑鞋), 일반 관리들의 관복(官服)에 갖추어 신었던 수화자(水靴子)·목화(木靴), 그외 사대부 남자들의 평상화인 태사혜(太史鞋), 비오는 날 신었던 진신, 사대부 여자들의 신발인 온혜(溫鞋)·당혜(唐鞋), 그 외도 나막신·유혜(鎭鞋)·짚신 등이 있다.

궁중의식에 사용하던 왕과 왕비의 신발로 석(舄)이 있다. 왕의 대례복인 면복에 착용하던 적석(赤舄)은 중국에서 사여 받았다고 한다. 《국조오례의》에 보이는 석은 목화와 같은 형태에 장식을 한 석이다. 그러나 국말 왕과 왕비의 석으로 전해져 오는 유물을 살펴보면 혜의 형태이다. 이로 보아 조선시대 후기에 가면 석이라는 명칭은 같지만 형태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왕이 상복에 입는 신발은 世宗代에 관복과 함께 들어온 조늑피화(皂鹿皮鞋)였으며, 왕세자는 조복과 제복에는 흑리를 신었고 공복에는 흑피화를 사용하였다.

백관(百官)의 신은 관복과 함께 《경국대전》에서 완성을 보게 되었다. 백관들의 조복과 제복에는 흑피혜를 신었고, 이 제도는 국말 《대전회통》에도 그대

로 제도화되었다. 하지만 국말에 와서 조복에는 목화를 착용한 사진이 많이 있다. 이 목화는 공복의 흑피화, 상복의 협금화 대신으로 착용되었다. 제복의 신발인 흑피화(제화)는 국말까지 계속 신었다. 형태는 일반혜와 같으며 운두가 낮고 가장자리에 흰 선을 둘렀고, 신고가 넓적하며, 한가운데에 나비 약 3cm 정도의 흰 선을 대었고, 벗겨지지 않게 양쪽에서 끈이 달려 있다.

사대부들이 평상시에 착용하던 신발은 태사혜·발막신·투혜·진신·나막신 등이 있었다. 유생들은 미투리를 신었는데 점점 사치스러워져서 혜나 화가 사대부와 같아져서 금제까지 제정되었다. 국말에는 흑혜나 운혜를 신었다.

신발의 분류는 날씨에 따라 진신과 마른신으로 구별하기도 한다. 즉 비가 오거나, 땅이 진 곳에 신으면 진신이고, 맑은 날, 마른땅에 신는 신은 마른신이라고 한다.

신발은 신을 만드는 재료에 따라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가죽을 재료로 한 피혁제(皮革製) ② 짚·왕골이나 삼을 재료로 하는 초마제(草麻製) ③ 비단이나 베등을 재료로 하는 포백제(布帛製) ④ 낫을 재료로 하는 유제(鋤製) ⑤ 종이를 재료로 하는 지제(紙製) ⑥ 나무로 만드는 목제(木製)의 신발이 있다.

갓신은 가죽을 재료로 만든 신발의 통칭이다. 조선시대에는 신을 파는 이진(履塵)·화진(靴塵)·종루(鐘樓)나, 소가죽의 창을 파는 이지진(履低塵)을 통해 갓신이 일반에게 유통되면서 가죽이 품귀현상을 빚자 일반인의 갓신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가죽을 다루는 사람들을 갓바치라고 불렀고, 이들은 개화기까지 서울 왕십리 부근에 모여 살면서 갓신을 만들었다. 갓신의 종류에 태사혜·발막신·당혜·운혜·온혜·징신 등이 있다.

태사혜(太史鞋)는 남자들의 신으로 울(고무신의 경우, 발을 감싸는 부분)을 형짚이나 가죽으로 하고, 코와 뒤에 흰 줄무늬를 새긴 것으로 주로 사대부나 양반계급의 나이 많은 어른들이 평상시에 신었던 신발이다. 조선말기 왕도 평상시에는 태사혜를 신었다. 색상은 검정이나 옥색비단에 흰 비단 선을 두르고 창은 가죽으로 대었다. 어린이들의 태사혜는 일명 ‘초립동’이라고도 하였는데 연두빛 바탕에 당홍 당수복문과 태사문을, 아니면 당홍 바탕에 연두문을 놓기도 했다. 태사혜의 특징은 신의 콧등에 장식으로 흰 무늬를 넣어 만드는 것이다. 바닥에 잔 징을 박은 것도 있다.

발막신 마른신의 한 종류로서, 상류계급의 노인들이 신었으며, 뒤축과 코에

폐맨 솔기가 없고, 코끝이 넓적하였으며 가죽조각을 대고 경분을 칠했다.

외코신은 상류사회에서만 사용했던 신으로 신코에 아무 장식이 없는 단조로운 모양이다. 신의 윗타리를 흰색과 옥색 또는 검정색의 비단이나 검정물을 들인 사슴가죽으로 하고, 신 윗타리 윗 부분에 바이어스를 두른 듯한 최고급품의 신이었다.

당혜(唐鞋)는 여자들의 갖신으로 코와 뒷꿈치에 당초문을 놓아 만든 신으로, 거죽은 가죽 위에 무늬 있는 비단으로 싸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혜라고 불렀다. 주로 사대부가의 여인들이 신었다. 신코와 뒷축에 눈을 새겨 붙이며 흰색 선을 두른다. 그리고 윗타리와 눈의 배색은 정해져 있다. 즉 연분홍 바탕에 초록색 눈, 노랑색 바탕에 남색 눈, 남색 바탕에 다홍 눈, 금향색 바탕에 남색 눈, 연두색 바탕에 자주 눈, 진분홍 바탕에 연두색 눈으로 하여 색상 조화를 이루었는데, 홍색 바탕에 청문을 놓은 것을 ‘청목댕이’라고 하여 조금 나이든 계층에서 신었고, 청바탕에 홍문을 놓은 것을 ‘홍목댕이’라 하여 젊은 층에서 주로 착용하였다고 한다.

운혜(雲鞋)는 **온혜(溫鞋)**라고도 한다. 비단과 융으로 가죽 위를 입히고, 코와 뒷꿈치에 구름무늬의 비단을 대거나 수를 놓기도 하는 여자들의 신이다. 배색은 당혜와 같으며 바닥은 가죽을 댄 단창이며 바닥에 징을 박기도 하였다. 제비부리같이 생겼다고 하여 ‘제비부리신’이라고도 한다. 이 신은 조선 태종 때부터 기록이 있다. 주로 공주·옹주의 신발로 사용되어 조선시대 말까지 궁중이나 상류층 여인들의 신발로 사용되었다.

꽃신[수혜;繡鞋]은 흔히 당혜나 운혜와 모양은 같고, 매화·대나무·나비·꽃 등을 수 놓은 비단으로 거죽을 감쌌기 때문에 꽃신이라고 한다. 개화기 이후에 일반 부녀자들도 꽃신은 혼인할 때 시댁에서 반드시 장만해 주었다고 한다. 꽃신은 신행을 가거나, 외출할 때 잠깐씩 신는 신발로 아껴 두었던 것이다.

진신은 생가죽을 절여서 만든 것으로 유혜(油鞋)라고도 한다. 진땅에 신는 가죽신으로, 바닥에 징이 있다고 해서 징신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바닥에 징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신발의 모양은 남자신은 태사혜 모양이며, 여자의 신발은 당혜나 운혜와 같다. 생가죽을 들기름에 절여 물이 스며들지 않고 오래 견디도록 여러 겹 겹쳐서 바닥을 만들고 신등의 가장자리는 가죽으로 만들어서 견고한 박음질을 했다. 사용되는 가죽은 탄탄한 소가죽·말가죽·개가죽 등을 사용했다. 징은 방침(防浸)과 신 수명을 길게 하고 진흙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상류층에서 신었던 신발이다.

유제(楡製)는 낫신이다. 유제혜라고도 불리운다. 이 신발은 낫쇠로 만든 신으로, 특수층에서 비오는 날에 신었다고 하며, 현재 유물도 더러 있다.

초마제(草麻製)로는 재료로 쓰이는 풀의 종류에 따라 **짚신·삼신[麻履]·왕골신·부들신** 등으로 나눈다. 조선시대에는 주로 먼길을 떠날 때 짚신 종류를 많이 신었다. 짚신의 용도는 들일을 할 때나 평상시에 주로 신었다. 짚신이란 신코가 짧고 엉성하게 짜여진 것이며, 앞의 총이 굵직굵직하고 26~30개의 총을 세운 것을 말한다. 왕골·청을치·실·종이 등으로 앞의 총을 50~60개 정도로 세운, 곱게 만든 고급 신을 **미투리**라고 한다. 미투리는 날씨가 좋은 날 신는 마른신의 일종이다. 평양 기생들은 외출 나갔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면, 미투리가 젖을까 봐 미투리는 가슴에 넣고, 버선발로 다녔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고운 미투리는 여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일제시대에는 일반서민 부녀자들이 혼인을 할 때, 형편이 어려워 갓신을 신지 못할 때는 고운 왕골에 염색을 하여 만든 왕골 신을 신기도 했다. 초상이 나면 상제(喪制)들은 생삼[生麻]과 짚을 섞은 것으로 만든 신을 신었다. **종이로 만든 신[紙鞋]**도 있었는데 먼길을 갈 때나 나들이 할 때 사용되었다. 이 신은 고급품이었고 《증보문헌비고》라는 책에는 조선 중기 숙종(肅宗)조에 지혜(紙鞋)가 너무 유행하여 책이나 문서가 많이 손상되어 민폐를 끼치므로 금지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유행을 짐작 할 수 있다.

목제(木製)는 **나막신**이 대표적인 신이다. 다른 말로는 격지·목극(木履)·목리(木履)·목혜(木鞋)라고도 한다. 나무 신이 음이 변하여 나막신으로 되었다고 한다. 주로 비나 눈이 올 때 신는 신발이며, 나무로 만들었으며, 신발모양은 굽이 있는 것과 굽이 없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굽의 용도는 발에 물이나 진흙이 튀어 들어가는 불편을 막기 위한 것이다. 조선 중기 이후 많은 기록과 유물이 남아있다. 나무는 주로 오동나무나 버드나무와 같이 단단하고 가벼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방수를 위하여 밀납을 칠하기도 했다. 신분이나 나이에 구별없이 많이 신었고, 무겁고 비활동적이어서 먼길을 갈 때나 말을 탈 때는 신지 않았다. 어린아이들은 채극(彩履)이라고 하여, 나막신에 채색을 하여, 진신이나 마른신으로 신었다. 나막신은 걷는 태도가 오만하다고 하여 천민이나 연소자는 어른 앞에서 신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가난하더라도 양반은 짚신이나 미투리는 신지 않았기 때문에 남산골에 사는 선비들은 진날이나 마른날이나 나막신을 신어서, 가난하고 청빈한 선비를 일컫는 말로 ‘남산골 딸각발이’라는 말도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농촌의 많은 사람들이 버드나무로 나막신을 만들어 신었다고

한다. 일본식 나막신인 게다와는 다르게 나무로 신발 바닥을 만들고 발등에 끈 두개를 연결하여 신는 요즈음의 슬리퍼와 비슷한 모양이었다고 한다. 나막신은 고무신이 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여 1940년 이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거의 사라졌다.

목화(木靴)는 조선시대 말기에 신 목이 긴 화를 우리말 식으로 표현 한 것이다. 조선시대 중·후기에 관복(官服)에 신었던 신으로 바닥은 나무로 만들고 그 위에 다시 가죽으로 감쌌다. 신목은 검정색 천으로 만들었는데 전(氈;모직물의 일종)·가죽·융(絨)·금단(錦緞;비단의 일종)으로 겹을 씌우고, 솔기에는 색 짙은 천으로 선을 둘렀으며 모양은 반장화와 비슷하게 생겼다. 오늘날까지 이 신발은 전통혼례나 폐백 때 신랑이 입는 관복(官服)과 함께 신는 신이다.

이렇게 다양한 신분과 형태·용도로 구분해 신던 신발은 개화기가 되면서 양복과 함께 서구식 구두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신발 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880년 이후 개화파와 외교관들이 구두를 신기 시작하여, 갑오경장 이후 양복이 공인되면서 고종과 엄비도 구두를 신게 되어 많은 논란이 있었다. 1895년 상류 귀족사회의 남자들이 구두를 신기 시작하였다.

개화기 때 여성의 구두는 굽이 낮은 이브닝 슈즈가 주로 신겨졌다. 그후 1900년대 초기의 신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신발은 짚신·미투리·나막신·진신이였다. 개화기 때 일반인들에게 주류를 이루고 있던 신발은 초혜였다. 대원군은 사치스럽고 비경제적이고 비활동적인 신발을 없애야 한다면서 비단으로 만든 신발들을 신지 못하게 금령을 내렸고, 재료를 섞어 만든 초혜(草鞋)도 신분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사용금지령을 내렸다. 신분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 갑오경장 이후, 사치스러운 신발이 없어져 가기는 했지만 오직 초혜는 유행을 했는데 이것을 개화짚신이라고 했다.

여지껏 엄격하게 지켜지던 신분표시로서의 신발의 역할은 점차 약해지고, 실용적인 면과 옷과 어울리는 아름다움의 발산도구로서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일제시대의 신문 만화란에 보면 구두 값이 비싸기 때문에 구두를 신는다는 것은 경제적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도 하다.

길이가 짧아진 양장과 통치마의 등장으로 1910년대 양말과 구두가 들어 왔지만, 극히 일부에만 소개되었다. 이 시기에는 전도부인과 통치마의 개화여성도 구

두에 버선을 신고 다녔다. 당시의 신발은 부잣집 자녀들은 삼색의 아름다운 울로 된 미투리를 신었고, 서민의 자녀들은 짚신·나막신이 고작이었다. 당시 미투리는 지금 서린동 광화문 우체국 자리에 있었던 전옥서(典獄署)의 죄수들이 옥중에서 삼은 것을 최고로 여겼었다. 서린동 미투리로 불리우는 이 삼색 미투리는 학생들 사이에 선망의 대상이 되었으며, 가짜 서린동 미투리가 나돌기까지 하였다.

1920년대 초 고무신이 처음 소개되었다. 우리고유의 당혜·운혜모양을 본딴 것이었다. 당시 순종(純宗)도 고무신을 최초로 신은 분 중에 한 분이였다. 이 고무신은 우리 고유의 신발을 새로운 소재인 고무를 이용하여 문화의 토착화를 성공한 좋은 예이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바닥만 고무로 하고 율은 가죽이나 베로 만든 신발을 편리화·경제화·경편화(輕便靴)라고 불렀으며 대단히 유행을 했다. 이 ‘고무구두’가 들어오기가 바쁘게 고무신 공장이 난립했다. 이와 함께 1920년대에는 구두와 양말이 유행을 했다.

1930년대 지방에서는 미투리나 짚신을 신었고, 그 외의 대도시에서는 고무신이 보편적이었으며, 신여성은 고무신 외에 경제화(운동화)를 신었다.

일제시대와 해방이후 물자가 귀하여 양화점과 신발제조 공장 등이 생길 무렵, 한국전쟁으로 신발이 부족하게 되었다. 학생들간에는 고무신과 운동화가 귀해져 군용 자동차 타이어의 안팎을 분해해서 만든 타이어 신이 질긴 것으로 유명했다.

전쟁 이후 1960년까지도 일반적인 신발은 고무신이였다. 시골에서는 운동화를 베 구두라고 하여 아이들 사이에서는 재생타이어로 만든 검정 고무신이 아닌, 흰 고무신과 운동화가 선망의 대상이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도 지방에 따라서는 명절 때 고무신을 선물하기도 하였으며,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한복이 일상복에서 멀어지고, 예복화 됨에 따라 신발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양복이 일상복으로 자리하게 됨에 따라 신발은 고무신에서 구두나 운동화가 주로 신겨지게 되었다. 각 시대에 유행하는 구두는 서구 패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서구의 유행과 나란히 가고 있는 현상이 시작되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적인 브랜드의 운동화가 도입되면서, 운동화는 값싸다는 개념에서 벗어난 고가의 운동화가 청소년층에서부터 보편화되기 시작하였다. 1990년 이후 빠른 패션주기와 함께 옷에 맞는 다양한 구두와 운동화가 혼용되어 신겨지고 있다.